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윤창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44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15.

발 의 자 : 윤창현 · 권명호 · 정운천
한무경 · 이종성 · 최형두
이철규 · 안병길 · 조수진
박대수 · 김선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내부증언으로 범죄해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.

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는 다수의 사람이 관련되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수사의 진행 및 유사범죄의 선도적 예방 등을 위해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련 진술 및 물적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진신고자나 내부증언자에 대하여 그 형벌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와 유사한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감면제도가 있음. 19

97년에 「공정거래법」에 카르텔(부당한 공동행위) 참가자가 그 참가 사실을 자진신고하고,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대가로 카르텔에 대한 제재, 즉 과징금 혹은 시정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하였으나, 2004년까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다가 2005년 개정 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된 이후 활성화가 되었음.

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449조 등)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조제9항제2호 중 “제449조”를 “제450조”로 한다.

제439조제2호사목 중 “제449조제3항”을 “제45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49조를 제450조로 하고, 제4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9조(형벌감면) 제174조, 제176조 또는 제178조제1항을 위반하여
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하고
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절차·재판절차에서 해
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범죄의 규명,
결과발생의 방지 또는 범인의 체포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
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형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) 제4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
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1조(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) ① ~ ⑧ (생략)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3. (생략) ⑩ · ⑪ (생략)	제101조(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제450조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⑩ · ⑪ (현행과 같음)
제439조(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)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1. (생략)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·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. ~ 바. (생략) 사.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	제439조(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사. 제450조제3항-----

<p>태료부과처분</p> <p>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449조(과태료)</u> (생 략)</p>	<p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449조(형벌감면) 제174조, 제176조 또는 제1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절차·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범죄의 규명, 결과발생의 방지 또는 범인의 체포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450조(과태료)</u> (현행 제449조와 같음)</p>
---	--